

전도대장 최봉석 목사

심 군 식 목사
예장 고신 총무/본지 편집인

“예수 천당” 하면 기독교 신자로서는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전도자, 최봉석 목사를 연상케 한다. 최봉석 목사는 그의 본 이름보다 권능이 더 잘 알려져 있다. 그래서 보통으로 그를 최권능 목사로 불려지고 있다. 그는 한국 교회사에 몇 가지 유명한 별명을 남겨 놓았다. 기도로 유명하고, 전도로 유명하고, 가슴에 불을 지닌 것으로 유명하고, 그의 마지막이 유명하다.

순교도 참으로 멋있는 순교를 하였다. 그에게는 “예수 천당”만 튀어나왔다. 평양 형무소에서 일경이 그를 심문할 때, 그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예수 천당”뿐이었다. 이처럼 기독교 신자로서 멋있게 산 사람이 또 있겠는가?

최봉석 목사는 1869년 9월 7일, 평양에서 최준서씨의 3남으로 태어났다. 어려서 서당 공부로 한학을 익히고, 16세 때 평양 감사의 비서 일을 보았다. 23세 때에 부친이 잘못도 없이 강동 현감에게 심한 매를 맞게 되자 최봉석은 의협심에서 현감을 발길로 걷어찬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최봉석은 평북 삭주로 유배를 당하였다.

이곳에서 한의사로서 교회 영수 일을 보던 백유계에게서 전도를 받게 되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깨달음이 오게 되었고, 33세 젊은 청년 최봉석은 그의 성격따라 뜨겁게 예수를 믿게 되었다.

1903년 34세 되던 가을에 감리교 선교사 노불 목사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미 그는 18세 때 결혼을 한 터라 부인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이다. 최봉석은 열심이 대단하였다. 항상 뜨거워진 가슴을 안고 교회 중심으로 살았고, 1905년에는 삭주 교회 영수가 되었다.

그는 그 해에 권서인이 되어 쪽복음과 전도지를 들고 나가 복음을 전

하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다 보니 압록강 주변에 많은 교회가 서게 되었고, 4년간에 무려 30여 교회를 설립하는 열매를 얻게 된 것이다.

1907년에는 벽동 교회 전도인으로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 해 평양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나이 탓인지 아니면 전도열 때문인지 시험 때면 언제나 합격 점수를 얻기가 어려웠다.

그리하여 졸업 때가 되었지만 그 명단에 최봉석의 이름은 빠져 있었다. 교수들을 찾아갔지만 “1년 더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2차나 낙제하였다.

비상한 각오로 1913년, 교수들을 찾아가 기도하 하였다. 기도할 때 “주님, 교수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옵시고 주의 종 최봉석에게 졸업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수들도 따라 아멘하였다. 최봉석은 교수들에게 “제가 기도할 때 아멘하였으니 하나님께 약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1913년 평양신학교 제 6회 졸업생이 되었다.

그 해 8월 24일, 목사 안수를 받고 열심 있는 목회 생활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의 뜨거운 가슴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원하였다.

1914년에 남만주 전도 목사로 평북 노회에서 파송받아 떠났다. 그는 벽촌을 다니며 전도하였다. 일제의 탄압에 못이겨 고향을 등진 실항민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외로움 탓인지 잘 받아들였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다. 1년 동안에 28개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1926년, 최봉석 목사는 평양으로 돌아왔다. 평양 지방 목사들이 모여 마포삼열 목사가 한국 교회에 끼친 영향이 지대하다 하여 그를 기념하는 뜻에서 동상을 세우려고 의논을 하게 되었다. 최 목사는 여기에 남아 결사 반대를 하였다. “동상을 세우는 것은 그것이 언제인가는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소. 그러니 동상을 세우지 마시오. 그래도 세운다면 나는 그 우상을 무너뜨리고 말겠소.” 단호히 반대하고 나서자 동상 건립을 포기하고 기념관을 세우게 되었다. 최봉석 목사는 이렇게 신본주의 사상의 사람이었다. 그의 신앙은 보통 사람으로 따르기 어려운 강한 면이 있었다.

1935년, 이 땅에는 일제의 신사 참배 바람이 일기 시작하였다. 일본 신사 앞에 굴복하여 머리를 숙이는 제 1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죄의 바람이다. 우상 숭배반대에 민감한 최 목사는 앞장 서서 반대 운동을 폈다.

그러나 조선 기독교 목사들이 모두 생명을 내걸고 반대하였다면 이 땅에 기독교는 살 수 있었겠지만 시대마다 거센 물결에 동승하여 인간 세력에 아부하는 무리들이 있는 법, 1938년 9월 제 27회 총회는 신사 참배가 국가 의식이란 미명 아래 하기로 가결을 보았다.

여기에 반대하고 일어난 목사, 장로 평신도들은 잡혀가 모진 고문을 당하였고 순교의 피를 흘렸다.

1939년, 6월 2차 검속으로 최 목사는 투옥이 되었고, 전국의 유능한 목사들(주기철, 한상동, 주남선, 이기선...)과 함께 평양 형무소에 투옥 되었다.

형무소 안에서도 종종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여주동행(與主同行)의 생활을 하였다.

1944년 3월 1일,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다. 죽음을 각오한 기도였다. 감옥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니 무모한 일 같다. 그러나 그는 이 땅의 교회가 무참히 일제의 총칼 앞에 짓밟히고, 더러워지고, 죽어간 무덤을 보고 그냥 감옥에서 마음 편히 지낼 수가 없었다. 자신과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의 장래를 위해 기도한 것이다.

1944년 4월 10일, 40일 금식 기도를 끝낸 최 목사는 숨만 쉬는 송장이었다. 뼈에 가죽만 씌워 둔 것 같은 그 초췌한 모습을 본 일본 간수들은 병보석으로 내어 보냈다. 기독 병원에 입원이 되었다. 15일간 치료를 받다가 1944년 4월 25일, 조국 광복의 날을 1년 4개월 앞두고 "하늘에서 전보가 왔구나 나를 오라 하신다." 하고 숨을 거두었다.

최봉석 목사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생이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겨 놓은 것이다.